현대소설연구(제76호)
The Journal of Korean Fiction Research
http://doi.org/10.20483/JKFR.2019.12.76.117

외부 없는 세계의 여행 서사

—2000년대 해외여행서사에 나타나는 억압과 탈주

김 세 정*

요약

본고는 2000년대 해외여행서사에 나타난 유동적 근대의 양상을 지도적 국경의 약화와 내면적 국경의 강화라는 징후로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탈주/월경의 문학적 상상 양상을 살펴본다. 2000년대 해외여행서사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인식한 것은 비장소성과 익명성, 그리고 기존의 여행서사의 여행구조를 벗어난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착-떠남-장착 플롯을 벗어나 2000년대 여행서사들의 구조는 귀환이 생략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들을 통해 읽어낼 수 있는 것은 유동하는 근대의 증후군이었으며, 이러한 현대가 주체를 내적인 본향의 자리가 결여된 존재로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편으로 이러한 특성들은 지도적 국경의 약화와 이에 반하는 내재적 경계의 강화를 드러내는데, 이 내재적 경계는 슬럼이나 게토라는 공간적 측면과 혐오와 공포의 정서라는 심리적 측면이 함께 한다. 여행자들은 떠나지만 다시 벽 안으로 들어서는데 그것은 '방'과 '길(미로)'의 모습으로 펼쳐진다. 이 속에서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서지만, 그것은 곧 유동적이고 압축적인 지구화된 세계의 경험과 다르지 않다. 밖을 향해 탈주하지만 결국 더 견고하고 거대한 틈 안에 갇혀있다는 것은 인식하는 것은 이 서사들에 공통적으로 드러난다.

떠났지만 다시 갇힌 존재로, 그러나 정착할 수 없는 존재로 구성되는 주체는 나름의 방법으로 다시 한 번 탈주를 준비한다. 일부는 잃어버린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구성하기 위해 입사의 의식을 완주하여 불안을 넘어서고 기억을 통해 고유성을 획득하고자 한다. 또한 이웃을 향한 애도와 배려를 잊지 않음으로써 갇힘 벽에 문을 내거나, 성실하게 이동을 지속하는 신체의 물리적 경험을 지속하며 비효율적

*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 수료

이고 서툴지만 끈덕진 '통역', 곧 소통을 위한 인내와 배려를 지속하기도 한다. 다른 한편 소유의 불안정성을 적극적 무소유로 향유하는 유목의 삶의 방식을 지속하기도 한다.

현재 우리가 놓여 있는 곳은 마치 '국경의 밤'과 같다. 명확한 선은 보이지 않아도 경쟁과 혐오로 그은 무수한 선들이 어디서든 우리를 억압한다. 소설 속 인물들은 열림 공간 속의 벽과 선에 대한 인식을 통과하여 월경의 상상력으로 나아간다. 아마도 소설은 끊임없는 이 상상력의 역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주제어: 여행서사, 유동성, 2000년대, 디아스포라, 김성중, 배수아, 윤고은, 이장욱, 해이수

목차

1. 머리말
2. 사라진 국경, 강화된 경계
3. 새로운 경계 앞에서 월경을 상상하기
4. 맺음말

1. 머리말

생활의 지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마도 여행이 아닐까? 업무나 학업에는 휴가나 방학이 있지만 생활, 그 삶의 일상은 휴가가 없다. 아마도 여행은 우리가 삶에의 의사 휴가를 경험하는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여행이 모호하나마 '일과 생존 투쟁의 제약을 받지 않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 준다'는 알랭 드 보통의 말처럼 말이다. 여기에 자신의 이왕의 정체성, 혹은 조건들로부터 잠시나마 자유를 느끼고자 우리는 최소의 사회적 연결망과 낯선 언어의 세계로 떠나곤 한다. 결연한 마음으로든 가벼운 일탈이든 국외로 떠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욕망들이 내재하고 있으리라.

인간의 이해와 욕망을 다루는 소설 속에서도 여행은 오랫동안 중요한 소재였다. 그것은 시대나 지역을 넘어 보편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하지만, 매 시대마다 각 기행서사들이 담당하는 독특한 지점들이 있지 않겠는가? 조선후기 『열하일기』는 닫힌 세계를 넘어서고자 한 역사적 조건이, 근대 초기 기행문들 속에서는 근대 국가의 질서가 확립되어가는 속에서 식민지 조국을 사유하는 다양한 시점이, 그리고 산업화 시기의 국내 현실 속에서는 고향상실의 현실과 그 안에서 소외를 해소하는 과정과 필요가 있어 왔다. 2000년대, 이 자본세에도 역시 여행서사는 쓰여 지고 있으며 또 기능하고 있다. 특히나 국내 보다는 해외를 향한 여행자들의 여정이 두드러진다. 그리고 이미 많은 연구자들의 다양한 관심 속에 문학사적 자리매김이 이어지고 있다.

해외여행을 소재로 하는 소설들에 대한 연구는 90년대를 시작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늘 있어 온 기행서사이지만 특히나 두드러진 수적 증가를 보여주는 지점, 그리고 여행지의 지구적 확장을 보여주는 지점은 90년대를 기점으로 나타난다. 90년대 초 세계화라는 거대한 지류를 가진 신자유주의의 흐름은 우리나라에서 만개한 듯했고, 사회 · 정치적 변화는 해외여행 자유화라는 구체적인 변화를 낳았다. 해외여행은 확산되었고 이후의 여행소설을 떠올릴 때 머릿속에 따라오는 이미지는 자연스럽게 국경 밖의 풍경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변화에 주목하여 다양한 주로 90년대 소설의 한 특징으로 '탈근대성, 노마디즘' 등과 관련하여 연구되었다. 이러한 연구의 방향은 이후 2000년대 소설에까지 이어져 왔는데, 이는 더 심화 · 확장되는 지구화의 경향과 깊은 관련이 있다. 최근의 경향은 특히 디아스포라라는 삶의 조건과 타자성, 그리고 그에 대한 윤리적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그것은 최근 두드러진 탈북민이나 난민의 삶의 조건에 대한 윤리적 성찰과 맥을 함께 한다.

여기서는 그 사이를 잇는 2000년대 해외여행 서사들을 살펴보려 한다. 특히 내면적 곤경으로부터 출발한 개인이 여행 등의 이름으로 시도하는

해외로의 탈주가 아이러니하게도 '방'과 '미로'로 향하게 하는 일련의 소설들에 주목하였다. 이를 통해 국경에 대한 인식과 그 월경의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2000년대 여행자들의 의미를 찾아보려 한다. 디아스포라의 삶이 보편적이라는 말은 난민 등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일부로 이미 기능하고 있다는 말이다. 더구나 매끄러운 세상의 경계 없음, 국경 없음 안에 혐오와 불안의 정서가 단단한 벽, 새로운 국경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 역시 그러하다. 2000년대 우리 소설 속에는 바로 이러한 정서와 인식을 선취하는 지점이 있다. 혐오담론과 세계 각국의 정치적 보수화가 이슈가 되기 이전, 국내적으로는 '헬조선'이라는 신조어가 범람하기 이전에 매끄러운 듯 보였던 국경과 낯설지 않은 이국의 풍경 속에서 결국 어디서나 동일한 벽 안으로 들어서는 인물들의 모습은 멀리 떠나 가장 좁은 곳 안아 들어서는 아이러니를 보여주며 새로운 국경을 예시한다.

조금 단순화하여 정리하자면, 여행자들은 막연하거나 분명치 않은 목적을 품고 국경을 넘어 자신의 일상으로부터 멀리 떠난다. 그런데 이렇게 먼 곳으로 이동한 그들은 다시 좁은 공간, 자신의 일시적 거처인 방 안에서 일상을 되풀이한다. 방 안이 아니라도 이들은 하나의 교통수단이나 길 안에 갇혀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이 때 외부 세계는 그 장소적 특성을 결여하고 있다. 그리고 소설의 대부분의 중요한 서술이 이 방이나 미로의 내부에서 이루어진다. 방이나 미로 속에 갇힌 외부와 단절된 세계. 이러한 특징은 지구화된 세계의 어떤 일면을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2000년대를 기준으로 발표된 해외여행서사 중에서 '방'과 '미로'의 모티프가 소설의 진행에 의미 있는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단편소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선정한 작품은 해이수의 「마른 꽃을 던져 주었다」(2007), 배수아의 「무종」(2009), 이장욱의 「이반 멘슈로프의 춤추는 방」(2010), 김성중의 「국경시장」(2011), 윤고은의 「콜럼버스의 뼈」(2013) 다섯 작품[1]이다. '디아스포라가 보편적인 삶의 조건이 된 21세기에 이르러 여행은 탈근대적 존재 방식에 대한 메타포'라는 말은 과장

이 아니다. 그렇다면 문학, 그것도 자아와 세계가 균열된 시대에 문제적 개인이 자아를 찾아가는 여행이라는 '근대소설'에서 오늘날 해외여행서사들은 무엇을 보여 주고 있을까? 전지구적 자본주의와 지구화의 조건 속에서 소설 속 인물을 어떻게 여행하며, 또한 국경을 사유하고 있는가?

2. 사라진 국경, 새로운 경계 (열린 세계 속에 갇힌 여행자들)

우선 「마른 꽃을 불에 던져 주었다」(이후 「마른 꽃」)는 호주로 유학 온 한국인 유학생인 '나'와 아프리카 유학생인 '벡스'의 호주 탈주 실패기라 할 수 있다. 「마른 꽃」은 비교적 앞서 발표된 작품답게 지구화 초기의 구체적 사정이 핍진하게 드러나 있다. 이야기는 이렇다. 프로기사 입단 실패와 절친한 친구의 죽음 이후, 진로를 방황하던 '나'는 호주로 유학을 온다. 그다지 넉넉한 경제 형편을 갖지 않은 탓에 유학생활은 유학인지 노동인지를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다 우연히 칼에 찔린 탄자니아 국경 지대 출신의 아프리카인 벡스를 구해준 인연으로 이후 때때로 함께 내기 당구에 팀을 이루어 바를 전전하며 푼돈을 벌게 된다.

두 사람은 모두 말하자면 자신의 문화권 안에서 성인식을 성공적으로 치룰 수 없었기에 국경을 넘어 새로운 기회의 세계로 이주, 혹은 시간의 유예와 새로운 기회를 위한 도피를 감행한 인물들이다. 하지만 이주한 곳에서 그들은 새로운 세상에서 그 세계의 성인식 역시 치룰 기회도 얻을 수 없다. 프로기사도 대학진학도 하지 못한 '나'의 경우 호주에서 전문대

1) 작품은 발표 순서에 따라 배열하였다. 각기 해이수, 「마른 꽃을 불에 던져 주었다」는 『리토피아』에 2007년 여름호에, 배수아의 「무종」은 『창작과 비평』 2009년 가을호에, 이장욱 「이반 멘슈로프의 춤추는 방」은 『문학동네』 2010년 여름호에. 김성중 「국경시장」은 『테마소설집 30』이라는 소설집으로 2011년 10월, 윤고은의 「콜럼버스의 뼈」는 여행을 테마로 하는 소설집 『도시와 나』로 2013년에 발표되었다. 참고문헌은 각 작품이 실린 작품집을 사용하였다.

학에 준하는 과정을 치르겠다는 사정이 있다. 그리고 명확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벡스'의 경우는 오히려 이러한 측면을 잘 보여준다.

> "왜 의례에 참가하지 않았어?"
> "나는 탄자니아로 나와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 그 의례가 시작될 때마다 학교에서 경시대회를 치르거나 큰 시험을 준비한다는 핑계로 마을에 돌아가지 않았어. 좀 미개해 보이기도 하구……."
> …중략…
> "준, 있잖아. 사실 나는 무조건 피했던 거야. 그런데, 다른 세상에 나와서 겁을 먹거나 약해질 때마다 후회되더라. 그 의례를 정면으로 치르지 않아서인지 나는 아직 어른이 아닌 겁쟁이라는 생각을 자주 했어. 그래서 이번에 고향 돌아가면 늦었지만 꼭 의례에 참석할 거야. 정말이야, 이번에 고향에 돌아가면 꼭……."[2]

하지만 호주에서의 이들의 생활은 녹록치 않다. 고향 소식은 IMF로 도배된 음울한 모습을 하고 있고, 자신은 바나 식당에서 밤새 청소를 하고 아침이면 학교에 등교하는 쳇바퀴를 벗어날 수 없다. 이 고생의 끝 역시 그닥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암담함이 그들에게 놓여 있다.

> 이국에 있는 스물 한 살짜리의 내 눈에도 한국의 경제상황은 몹시 나빠 보였다. 금융시장 불안이나 부동산 가격폭등, 노사정의 합의 문제를 포함한 경기침체 소식은 이곳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었다. 어느 날 맘먹고 구해서 읽은 한국 신문에서 '이유 없이 쉬는 남자 100만 명 넘었다'는 기사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것은 극심한 청년 실업률 문제와 가중되면서 한국 유학생들이 갖고 있던 성냥불 같은 희망에 찬물을 끼얹었다.[3]

2) 해이수, 「마른 꽃을 불에 던져주었다」, 『젤리피쉬』, 2009, 279면.
3) 해이수, 같은 책, 270면.

‘나’와 벡스는 호주에서의 쳇바퀴 생활을 온갖 바닥을 닦아내는 걸레질을 하는 “와이퍼”의 삶이라고 부른다. ‘나’는 마로 이 ‘와이퍼’같은 일상 속에 쉼 없이 달리고 있는 것이다. ‘벡스’ 역시 거주와 생존을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이 온갖 일을 전전했지만, 현재는 내기 당구를 치거나 약에 빠져 해롱거리는 환각의 쳇바퀴 안에 있을 뿐이다. 그들은 지구를 반 바퀴나 돌아 왔지만 결국 골방 안으로 유폐되었을 뿐이다. 『마른 꽃』의 이야기는 과거 회상이나 거간의 사정을 요약하는 경우가 아니면 대개 두 장소를 벗어나지 않는다. 하나는 벡스의 ‘싸구려 원룸 유닛’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이 당구 게임을 하는 ‘클럽 〈스테어웨이 투 더 헤븐(stairway to the heaven)〉’이다. 사실, ‘나’의 한국에서의 이야기도 기원과 당구장, 그리고 맥주집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곳이 어디든 그들에게 허락된 공간은 골방 안뿐이었을지 모른다.

이 둘이 이 방 안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얼마간의 돈을 마련하여 안전하게 귀환하는 것뿐이다. 하지만 그들의 목표는 처음부터 도피였기에 그들의 귀환은 불가능한 것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이들이 국경을 넘어 이곳으로 왔을 때, 그들이 만난 것은 새로운 국경이다. 이동의 자유는 주어졌지만 이 이동의 자유는 자본을 매개해서만 교환이 가능한 것이며, 결국 체류가 지속될수록 그들은 전지구적 슬럼 혹은 게토라는 새로운 국경 안으로 갇혀 버린다. 아니 더 나아가 그들이 바라 본 미래의 모습이 이미 그 국경 안에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국경시장』에서도 성인식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없는 경계인들이 등장한다. 각기 자신의 인생에 상징적인 경계(30과 40이라는 나이로 대표되는) 앞에서 머뭇거리며 장기 여행을 하는 세 명의 여행자들이 있다. P국에 면한 N국의 국경 즈음에 모인 이들의 여행은 귀환을 예정한 일반적 여행이기보다는 방향 없이 무언가를 유예하기 위한 움직임일 뿐이다. 이들이 다시 길을 떠나 여행이라는 것을 시작하려는 즈음, 국경

을 넘으려는 이들이 도착한 곳은 만월에만 열린다는 화려한 국경시장이다. 이 국경 시장의 교환을 위한 유일한 화폐는 소년들만이 잡을 수 있는 물고기의 비늘로, 이 화폐를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기억을 팔아야만 한다. 고통이나 슬픔 같은, 혹은 지루함과 무의미함 같은 기억들을 주고 이들은 화폐를 구매하고, 원하는 물건을 사지만 이젠 스스로는 전혀 기억할 수 없는 기억들을 잃은 허전함은 더 많은 소비로 이들을 이끈다. 기억을 주고 화폐를 사서 잃어버린 기억을 대신할 물건을 사는 이 무의미한 공전의 순환은 결국 바닥을 보이고 마는 통장 잔고마냥 기억이 비어버리고야 끝이 난다.

이 국경시장의 교환 논리는 자본의 논리의 환상적 은유다. 가장 특이하고 고유한 것일지 모르는 기억이라는 것이 하나의 추상으로 획일화되고, 이 추상이 모든 질서를 압도하는 세상. 자신이 생산해낸 것/기억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되고 소비라는 또 다른 소외로 빠져드는 이 시장은 어떤 경계도 차이도 없이 무한 증식하는 하는 듯 보인다. 결국 세 여행자들은 이 국경시장에 갇혀 버리고 만다. 증식할 때는 미로와 같아 시장 밖으로 나갈 수 없고, '달의 고도에 따라 번영하다가 쇠퇴하는' 시장의 논리에 따라 파장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급격히 길을 사라지게 만드는 그 '변덕스럽고 믿을 수 없는 달의 음모'가 여행자의 탈출을 방해한다.

> 국경시장의 먹이사슬을 목격한 나는 무력한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제야 거리를 가득 메운 여행객들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 것 같았다. 달이 저물기 전에 시장을 빠져나가지 못한다면 내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
> 나는 빛이 남아 있는 골목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왕성한 번식력을 자랑하던 시장은 열두 개의 골목에서 여섯 개의 골목으로, 여섯 개의 골목에서 다시 세 개의 골목으로 줄어들고 있었다. 모든 것이 변덕스럽고 믿을 수 없는 달의 음모인 것이다. 이미 동쪽 끝에서부터 새벽이 시작되고 있었다.

> 이제 국경시장에는 단 하나의 골목만 남아 있을 뿐이었다. 거리를 달리는 사람 또한 나 혼자였다. …중략… 더 이상 내 뒤로 빛도, 소리도, 냄새도 느껴지지 않을 무렵에서야 안개에 휩싸인 사면상의 모습이 드러났다. / 거대한 사면상을 통과하자 보이지 않는 육중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려왔다.[4]

'시장'이라는 열린 마당의 이미지가 미로의 막다른 길로 변하는 위의 서술은 이러한 유폐의 이미지를 잘 보여준다. 열린 시장은 결국 철저하게 제한된 세계, 또 하나의 골방인 것이다. 모든 고유한 것을 집어 삼키며 증식했다가 증식의 숙주인 고유한 것이 떨어지면 순식간에 해체되어 버린다. 「국경시장」의 인물들은 「마른 꽃」의 인물들처럼 게토로 유폐된 듯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앞의 인용문 속에서 '나'가 느끼는 불안은 열린 시장으로 가득한 지구적 공간의 거대한 자본의 국경 사정을 잘 보여준다.

바우만은 21세기를 설명하면서 유동성을 핵심적 특징으로 내세운다. "사회적 형태들이 더 이상은 제 모습을 유래 유지할 수 없는" 형성의 시간 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해체되고 소멸되고" 있는 유동성의 세상에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정보와 경직된 낡은 습관을 신속하게 그리고 철저히 잊는 것이 중요하다."[5] 하지만, 고유한 과거들에 대한 기억이나 지난 학습을 통해 마련된 기반들은 그야말로 우리와 우리의 관계를 구성하는 세포들이다. 관계와 기억들을 통해 지속과 생성을 유지하는 존재로서의 '나'가 등가교환의 세계 속에 소모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열린 시작 속에 갇힌 인간의 모습에 다름 아니다.

소설의 형상은 이렇게 불안을 넘어 공포의 양상을 띠고 있는데 이러한

4) 김성중, 「국경시장」, 『국경시장』, 2015, 34면.
5) 지그문트 바우만 지음, 한상석 옮김, 『모두스 비벤디 : 유동하는 세계의 지옥과 유토피아』, 후마니타스, 2010.

공포가 만드는 방 안에 갇힌 또 다른 여행자는 「이반 멘슈로프의 춤추는 방」(이하 「춤추는 방」)에서 만날 수 있다. 「춤추는 방」은 몰락의 역사와 정신적 가치로 정의되는 정체성이 부식된 세계에서 불안으로 자라는 자본주의의 공포를 환상적 이야기로 함축한다.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배경으로 작가로 추정되는 인물 '나'의 여행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춤추는 방」의 여행자 역시 방 안에, 혹은 악몽 안에 갇혀 있는 존재로 등장한다. "상트페테르부르크 바실리 섬. 스레드니 15번가 98번지. 5층 7호."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이 방 안에 국한되어 있다. 19세기 식 공동 주택 5층에 위치한 이 방은 13년 전인 1994년 교환학생으로 이 도시에서 머무르면서 알고 지낸 가난한 신학생 안드레이가 소개해 준 방이다. '나'는 이 방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이 도시에서의 과거를 간간히 회상하지만 그뿐이다. 더구나 그가 여행하는 현재의 시간은 문득 창문을 열면 "자정과 같은, 그런 아침이 와 있"는 백야다. 그래서 이 소설의 배경은 마치 시공간적 모든 흐름이 공전하는 거대한 미로의 방과 같다.

13년의 시간 만든 변화에 대한 서술은 두 가지로 집약된다. 하나는 가난한 신학생에서 공포소설을 쓰는 스시 전문 일식집 매니저로 변신한 친구 안드레이의 존재, 그리고 "이제는 나이프를 들고 다닌다."는 스킨헤드들에 대한 소문. 자본 안에서의 생활의 불안, 소비라는 의미에서의 문화적 세계화와 근원적 가치의 유무라는 물음 자체를 폐기하는 현실을 담고 있는 것이 안드레이의 변화라면, 스킨헤드의 소문은 적대와 혐오라는 새로운 경계를 보여주는데, 이것이 '소문'이라는 점은 흥미롭다. 적대와 혐오가 불안과 공포라는 우리 내면의 경계에 기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결과물인 적대와 혐오 역시 더 강력하게 힘을 발휘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내재적 경계의 형식이 아닌가.

「춤추는 방」에서 공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방의 원래 주인도, 그리고 이 방을 나에게 소개해준 안드레이도 공포소설 작가다. 그리고 무

엇보다 이 소설은 “상트페테르부르크 바실리 섬. 스레드니 15번가 98번지. 5층 7호.”라는 너무도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바, ‘나’의 임시 거처에서 내가 느끼는 공포와 악몽의 기록이다.

> 구체제의 정적인 분위기에서 살던 사람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이건 뭐지? 왜 자꾸 불안해지는 거지? 사람들은 왜 싫어지는 거야? 그런데 오늘은 매우 바쁘군.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불안을 생산함으로써 움직이는 것이 자본주의라는 것을, 사람들은 천천히 깨달아가고 있었다.[6]

13년 전 체제 변동기를 회상하며 그가 서술한 당시의 이 분위기는 이제 불안을 넘어 공포의 모습으로 13년 후 내면화된 새로운 국경의 모습을 설명한다. 결국 ‘공포’는 현재를 대변하는 키워드로 읽어낼 수 있을 것 같다. 소설은 말미에 우리에게 이 공포가 누구의 것인지 묻는다.

> 이봐, 아름답고 잊히지 않는 단 한 줄의 시를 써보게.
> 또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 장편소설을 말이다.
> 이 악몽에 대해서.
> 이 악몽이 과연 누구의 것인지.
> 또는 무엇의 악몽인지에 대해서 말일세.[7]

또 다른 소설 「무종」에서는 이 공포의 세계를 다른 측면에서 담담한 어조로 그려내고 있다. 그것은 미로와 떠돎을 병치해서 보여준다. 독일에서 한 ‘모형비행기 수집가’와 ‘무종의 탑’으로 ‘무종’이라는 작가의 낭독회를 찾아가는 중인 ‘나’는 ‘러시아인 택시기사’가 모는 택시 뒷자리에 앉아 있다. 택시기사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는 이 무종의 탑은 그러나 아무리

6) 이장욱, 「이반 덴슈로프의 춤추는 방」, 『기린이 아닌 모든 것』, 2010, 260면.
7) 이장욱, 같은 책, 285면.

헤매도 도통 찾아지질 않는다.

> 택시 운전사가 지리에 총체적으로 어두울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무종이라는 이름을 전혀 모르고 있으며, 심지어는 무종의 탑이 있다는 말조차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그 탑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으니 정확한 주소를 대라고 했는데, 수집가가 불러준 주소는 운전사의 내비게이터에도 입력되지 않으며, 그래서 운전 그 주소가 맞는지 의심스러워하고 있지만, 모형비행기 수집가는 매년 빠지지 않고 무종의 탑에서 벌어지는 문학행사에 참석해온데다가 매번 택시를 탄 것은 물론이고, 그때마다 단 한번도 주소를 틀리게 기억한 적이 없으니 이번에도 당연히 절대로 틀릴 리가 없으며, 유명한 작가의 낭독회와 그보다 더욱 유명한 비누—화장품 제조자의 이름을 가진 예술극장으로 가는 일이니, 만일 운전사가 외국인만 아니었다면 주소를 알려줄 필요도 없이 당장, 벌써 한시간 전에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다주었을 거라고 강조해서 말했다.[8]

언어도, 지리도 익숙하지 않은 러시아 운전사에게 수집가는 정확한 언어를 사용하여 예의바르게 추궁하고 있다. 외국인인 내가 또 다른 외국인이 모는 차를 타고 여행지의 길을 찾아가는 상황. 이 역시 지구적 상황을, 생산과 소비를 위해서 사라진 근대적 국경의 모습과 그 안에 드러나는 다양한 정념들을 암시하고 있다. 지독한 만연체로 마지막 서술어를 완성하지 않으면서 쉽게 재현의 결론을 내지 않는 방식으로 말이다.

노동과 여행은 전혀 다른 출발점이지만, 하나의 공간 안에 다양한 인종과 국적을 가진 인물들을 만나게 한다. 지구적 상황은 낮은 국경의 외관을 하고 월경을 강권하고 있다. 그들은 매끄럽게 만나는 것 같지만, 다양한 경계의 선 이전에 그들 앞에 놓인 소통의 문제를 마주하고 있다. 그것은 언어적 문제인 것도 계층의 문제인 것도, 혹은 시간의 문제인 것도 같

8) 배수아, 「무종」, 『올빼미의 없음』, 2010, 158면.

다.

이와 같이 2000년대 해외여행의 서사들은 제국 혹은 유동하는 세계와 그 속에서 살아 가야할 주체들의 삶의 양상을 형상화하고 있다. 해외여행을 하는 이들은 국경이라는 경계를 넘어 열린 세계 속에서 자신의 여정을 진행하지만, 그들은 그 먼 길을 가서 다시 자신의 방안으로 들어선다. '국경을 넘어 멀리 떠나서 방안으로 향하는' 이 아이러니 그들이 온전한 휴식과 고독을 회복하고자 하는 욕구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미디어로 실현된 시공간적 압축이 무한 경쟁의 속도를 요구하고 언제나 온갖 사회적 관계들로 넘쳐나는 일상적 삶 공간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그들은 지리적으로 먼 곳을 향하여 정신적 휴식의 상태이자 자신만이 존재하는 공간, 고독의 상태를 향해 탈출하는 것이다.

먼 길을 떠나와서 그들이 들어서는 곳이 방안이라는 것 역시 참으로 아이러니하지만, 소설의 중요한 이야기들은 모두 방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미 기술한 바대로 길과 시장의 이미지 역시 방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그것은 풍경을 품고 있기보다는 미로로서의 기능에 더 충실해서 인물들은 이 길로부터 벗어나고자 하지만 끝내 벗어나지 못하거나 혹은 방 안으로 탈출하는 아이러니를 보여준다. 이러한 아이러니가 품고 있는 첫 번째 암시는 희미해진 국경선과는 반대로 더 강력하고 폭력적인 경계선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이 시도는 그 시도로서의 해외여행이 가능해진 조건, 바로 시공간적 압축이라는 기술적 상황이 만들어낸 속도와 국경을 낮춘 직접적 원인인 '탈규제화된' 지구적 경쟁의 세계에 의해서 실패로 돌아간다. 떠나간 곳에서 그들은 휴식으로서의 방, 자유로움의 길 안에서 불안과 공포를 경험하며 갇혀버리고 마는 것이다. 결국 여행자들을 가두는 방과 미로는 새로운 국경이라고 할 수 있다. 심지어 그것은 마치 근대 국민 국가가 그랬던 것처럼 자연 발생적이고 기원적인 듯 상상되고 내면화된 국경이다. 이 국경의 공간적 함의는 편재된 게토 혹은 슬럼이며, 조건적 함의는 시스템

이 속도와 요구에 부합할 것, 그리고 정서적 함의는 누구나 순식간에 이 게토의 일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자본주의적 불안과 공포의 정서이다. 심지어 이 불안과 공포에 대한 정서는 타자에 대한 적대와 혐오를 강화하기에 이르고 있다. 각 소설들의 인물들은 자연스레 공간의 이동을 경험하고 있지만 동일한 경계를 내면화하고 있기에 어디에서든 자신을 보호하려는 요새와 같은 방안에 갇힌 신세가 된다. 그러나 그 방안에서도 아니 그 방이 만들어내는 공포에 또 다시 탈출을 감행한다. 그렇다면 구속의 순환을 벗어날 길은 없는 것일까?

3. 새로운 국경 앞에서 월경/귀환을 상상하기

파국에 이르거나 공포에 갇혀 버린 인물들은 나름의 탈주를 감행한다. 「마른 꽃」의 '나'는 자신과 벡스의 상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넘어서고자 한다. 물론 처음의 시작은 단순한 탈출 기도에 다름 아니다. 각기 '나와 닮은 게토의 주민들의 고독한 얼굴'[9]로 만난 준과 벡스는 이 게토로부터 탈주하기 위한 마지막 시도를 하게 된다. 각자의 성공적 귀환을 위해 크고 위험한 내기판에 뛰어드는 것이다. 물론 이 내기는 성공하지 못한다. 중국출신 고리대금업자가 주관하는 게임에 큰 빚을 진 벡스가, 위험한 베트남 출신 조직원 띠앙과 호주 최고의 우범지대에서 벌이는 내기 당구. 말 그대로 게토화된 세계, 슬럼의 한 복판에서 이들은 결국 백인 경찰의 폭력적 집압의 대상이 된다.

9) "… '국경을 넘어서' 새로운 삶의 반경을 구축하는 일은 여전히 꿈에 불과하다. 혹은 국경을 넘어서도 그것은 국경 내에서의 '게토'화된 삶의 연장일 뿐이다. 즉 이들에게 국경을 넘는 일은 더 이상 국가의 경계를 넘는 것이 아니라, 경계 없이 전 세계에 만연한 게토와 게토 사이를 넘나드는 일일 뿐이다. 그러니 국경을 넘어서도 만나는 것은 '나와 닮은' 게토의 주민들의 고독한 얼굴뿐이다." 권명아, 『무한히 정치적인 외로움』, 갈무리, 2012, 166면.

'나'의 곤경은 외적 조건이 집약된 하나의 내적 상처와 관련되어 있다. 동경과 질투의 대상이기도 했던 오랜 친구의 자살. 함께 바둑기사의 길을 걷던 그들이 사회로 발을 내딛어야 하던 고3 겨울, 만인의 기대를 받던 친구'섭'은 결승대국에서 박빙의 기세를 보이다. 패배한다.

> "미친놈, 뭐? '2의 1' 을 좋아하지 않는다구? 이 자식아, 네가 어떻게 그 딴 말을 할 수 있어! 넌 단 한 수의 패착에 이제까지의 모든 걸 망쳐버렸다구. 형세가 좋지 않았다는 건 알지만 불가능한 건 절대 아니었어. 굉장히 미세한 계가였다구. 만약에 그 끝내기에서 패로 버텼다면 사범님 말씀대로 반집승이었단 말이야! 패로 버텼더라면 넌……."[10]

'싸움은 계속된다. 그것이 아프다.'라는 두 줄의 유서. 그것은 사실 '나'가 처한 사정과 다르지 않다. 아니 자본세의 지구에서 싸움은 계속되고 그것을 지속하며 버텨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룰처럼 보인다. '섭'을 잃은 충격은 경쟁과 싸움이 지속되고, 그 속에 버티기가 지속되어야할 자신의 삶에 대한 두려움을,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쓰러져 간 또 다른 자신('섭')을 돌보지 않은 공동체 혹은 이웃의 죄책감까지 함축하고 있다. 이 곤경의 상황을 넘어서는 가능성은 벡스와의 관계들에서 그려진다.

벡스의 강요에 가까운 권유 때문이기도 하지만, 드디어 싸움에 응한다는 것은 '나'에게는 일종의 입사 의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비록 무모한 내기일지라도 말이다. 한편으로 그들은 이웃과의 상호 돌봄이라는 윤리를 이어 나간다. 칼에 찔린 '벡스'에게 두려움과 고단함을 누르고 도움의 손길을 내민 '나'의 돌봄의 윤리. 조금은 어긋나 있지만, 은혜와 원수만은 꼭 갚기 위해 나에게 친절한 '벡스'. 서로에게 진솔한 이들의 관계는 이웃과의 상호 돌봄의 윤리와 애정을 보여준다. 내기가 파국으로

10) 해이수, 같은 책, 278면.

치닫고 벡스는 차별과 멸시의 시선 속에 죽어 가지만, 입사의식의 성공과 용사의 용기를 상징하는 마른 꽃을 던짐으로 이전에 실행하지 못한 애도를 실천한다. 그것은 일종의 입사 의식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이 닫힌 세계를 나설 수 있는 문, 이웃에의 배려나 연대라는 문을 내는 행위이기도 하다.

「국경시장」의 인물이 완수하는 탈주는 '기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오로지 '나'만이 국경시장의 모습을 확인하고도 그곳을 벗어났던 인물이다. 물론 그마저 결국 죽음을 맞이하고 말지만. 시장을 인식하고도 그곳을 나설 수 있으려면 기억으로부터 도망치지 않아야 한다. 시장에 들어선 세 사람의 인물들이 마지막에야 도달한 사실처럼, 자신의 상처와 결핍으로부터 도망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고 진정한 애착을 지켜야 했다.

> "다음 만월에 날 만나러 와줘."
> 그녀는 모든 기억을 전소시킨 순간에 이런 부탁을 남겼다. 로나는 더 이상 로나가 아니었다. 우아한 독신 귀족 같은 여자는 이제 사라졌다. 그녀는 슬픈 기억을 모두 버린 후에도 여전히 세상으로 나갈 자신이 없었던 것이다.[11]

국경시장을 나서기 전 '나'에게 '로나'가 남긴 편지의 끝은 자신을 기억해주길 소망한다. 자신의 슬픔의 기억으로부터 도망치던 그녀가 끝내 도망친 세계에는 그 어디에도 그녀가 존재하지 않는다. 슬픔이나 상처가 주는 공포로부터 눈을 돌린들 탈주는 가능하지 않았던 것이다. 오히려 소중한 기억을 만들어 간 이들과의 관계만이 탈주의 가능성으로 놓여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춤추는 방」은 공포를 마주 볼 것을 권한다. 악몽과 공포는 누구의 것인가?

11) 김성중, 같은 책, 33면.

> 이봐, 나는 스틸녹스를 너무 많이 먹지 말라고 충고하는 것뿐이다. 알고 보니 자신이 유령이었다는 이야기의 사회적 버전을 혹시 아는가? 인민의 적을 퇴치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처단해야 했던 혁명가 이야기 말일세. 자본주의를 증오했는데, 알고 보니 자신이 주식투자자였다는 남자의 이야기는 또 어떤가. 악몽이란 언제나 그런 식이지.[12]

소설 속에서 이반과 안드레이, 그리고 심지어 이반의 소설 속에 등장하는 소녀까지, 그리고 그 방에서 이 악몽과 마주한 '나'까지, 모두는 악몽 속에 있다. 이 악몽은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것일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이 악몽의 공포가 그리고 그 공포를 기록한다는 것, 혹은 마주한다는 것, 그것이 이 소설이 국경을 인식하는 방법이 아닐까. 안드레이의 공포소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하지만 바로 이 공포를 대면하지 않으면, 인간은 진정한 자신과 만날 수 없다." 고 이야기한다. 「춤추는 방」에서 '나'는 사라진 수많은 국경들을 그려내고 그렇게 국경이 사라진 세계가 더 큰 경계 안에 그려졌음을 도시가 아닌 '방' 안에서 경험한다.

「무종」의 '나'는 환상과 현실 속에서 흔들리며 불안을 넘어서면서 이주를 지속한다.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국경을 넘어서는 두 번째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무종」의 인물은 적극적으로 유목의 삶을 살아가는 소설가이다. 그녀는 이 도시 저 도시를 떠돌며 잠시 셋방을 얻어 사는 삶을 선택했다. 이 적극적 선택은 결코 여유로부터 유래한 것이 아니어서, 그녀의 가난한 삶은 단촐한 여행 가방만으로도 쉽사리 짐작할 수 있다. 그녀에게는 떠나온 곳도 가야 할 곳도 고정되어 있지 않다. 임시거처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방과 방 사리를 옮겨 다니며, 그 이동을 위해 소유물은 가볍게 짐으로 버려지거나 남겨질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된다. 수집이라는 소유와 집적은

12) 이장욱, 위의 책, 123면.

집이 없는 그녀에게 해당된 일이 없다. 방에서 방으로 이동하는 그녀의 삶은 '수집'과는 거리가 멀다. 그것은 하지 못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녀가 지향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과 교환한 것이기도 하다. 가질 수 없음을 갖지 않음으로 전환하는 것은 단순한 유희적 유목이나 약탈적 유목의 형식이 아니다. 그것은 국경 사이에 자신의 위치를 놓음으로 자신의 주체성을 구성한 하나의 방식이다. 이를 통해 '무종'의 '나'는 자신이 가진 가난과 불안정성을 적극적으로 향유하는 삶으로 월경/귀환을 꽤한다.

또 다른 시도는 「콜럼버스의 뼈」(이하 「뼈」)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여기 찾을 수 없는 주소를 들고 길을 헤매는 여성이 있다. 소설 속 '나'는 관광객으로 가득한 스페인 세비야에서 "관광객도 도둑도 아닌" 존재로 거리를 헤매고 다닌다. 그녀가 찾는 곳은 아버지일 것으로 추정되는 누군가가 한 때 묵었다는 주소지이지만, 관공서를 거듭 찾아가고 마차에 올라타 주소지로의 이동을 요구해도 도무지 찾아지지 않는다. 오랜 불면증을 앓아온 그녀는 시에스타로 "하루에 두 번도 더 잠드는" 이 도시에서 단 한 번도 잠들지 못하고 알 수 없는 주소 속에 갇히고 만다. 심지어 그녀가 아버지를 찾는다고 해도 그를 알아볼 길은 없다. 그것은 철저한 막다른 길이다.

> 그 골목은 끝없이 이어져 이미 내가 처음 들어왔던 그 거리 이름은 사라진 후였다. 골목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여기엔 아무도 없다는 거였다. … 이제는 시내나 택시를 잡아 탈 수 있는 어떤 곳으로 가고 싶어도 출구가 보이지 않았다.[13]

아버지 찾기라는 자아정체성을 향한 그녀의 이 순례는 마치 확고한 것인 양 이야기되는 유전적 지표나 유아기 양육의 영향에 대한 주변의 발화

13) 윤고은, 「콜럼버스의 뼈」, 『도시와 나』, 바람, 2013, 171면.

와 맞닿아 있고, 이 발화들은 암암리에 나'에게 고정된 뿌리의 중요성을 강제하는 것인지도 몰랐다. 그러나 이런 강제된 지향과는 달리 그녀에게 주어진 것은 전혀 다른 것, 이식된 세계(양부모)와 정확하지 않은 다양한 풍문과 그 산물인 아버지의 주소와 같은 것들, 확실하지 않은 기왕의 정체성,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가져보지 못한 근원들이다. 어떤 면에서 그녀의 오랜 불면은 순정한 특질들로 이루어진 정체성의 세계로 진입해야한다는 오랜 압력들의 결과이자, 어디에도 깃들 곳 없는, 그리고 어떠한 기반도 갖지 못한 탈근대인들의 삶의 조건 속에서 기인한다.

이 이야기는 그녀가 세비야 대성당서 들은 '콜롬버스의 뼈'에 관한 이야기와 맞닿아 있다. 대성당의 그것이 진짜 콜롬버스의 뼈인지에 대한 여러 소문들과 이를 규명하기 위해 세계의 여러 지역의 콜롬버스의 자손일지 모르는 사람들과의 DNA 검사가 이뤄졌다는 이야기. 이 이야기의 결말을 그녀는 서로 다른 골목으로 들어서 하루 동안 두 차례 만난 막다른 골목집 '콜롬'에게서 듣게 된다. 콜럼의 다섯 남매는 자신들이 "일찌감치 한 아버지의 자식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들의 아버지는 때로 누가 친자식인지를 잊어가며 그들 모두를 한결 같이 사랑으로 키웠다. 그들 역시 '콜롬'이었기에 그 아버지는 이 콜롬버스의 자손 찾기에 온 가족의 DNA샘플을 보내고 그 결과를 기다린다. 결과는 모두에게서 동통된 특질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이며, 더 분명한 사실은 과학의 발달을 위한 시간 속에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아버지는 이것이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표지인 듯 받아들이며 만족스레 마지막 시에스타에 빠져들었다는 것이다. 콜롬 남매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된 '나'는 그들 사이에서 여러 차례의 통역을 거친 대화 끝에 드디어 그녀가 찾던 주소에 대한 하나의 답을 듣는다. 그것은 노래 가사 속에 있었다.

그건 함부로 뱉어낼 수 없는 뜨겁고 어떤 것이었다. 단지 그 감정 하나로 이 세비야 골목들과 내가 건넌 몇 개의 바다와 낯선 국경들이 모두 합

당한 것이 되고도 남을 것 같았다. (중략) 그녀의 노래를 듣는 동안 내 안에서 어떤 공기가 역류했고, 비로소 나는 편안해졌다. 노래가 끝나자, 콜롬 가족은 나에게 아버지가 이 곡을 들려주고 싶었던 모양이라고 말해주었다. 이 수첩 속 주소가 내게 온 데에는 바로 그런 이유가 있었던 모양이었다.

결국 「뼈」의 '나'는 도둑처럼 닥친 시에스타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는 '나'가 허상의 실체를 확인하고자 하는 미로를 향한 끈덕진 부딪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이 미로의 막다른 길들을 하나하나 부딪치며 수많은 소통들을 경유하여 월경/귀환을 실현한다. 그리고 그 실현은 그녀에게 깃들 곳으로서의 집으로, 소유가 아닌 휴식을 주는 집으로 인도한다.

> "얼마 전에 내게 휴대폰으로 고백을 하려고 했던 아가씨야. 그런데 휴대폰에서 남자 목소리가
> 나와서 누구의 고백인지 헷갈렸지."
> 내가 쾌활한 남자의 목소리를 다시 들려주자, 콜롬의 가족들이 웃었다. 콜롬은 두 가지 언어로 얘기했다. 나를 위한 영어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위한 스페인어. 그런 동시통역의 과정은 마치 돌림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느껴졌다. 가족 중에 누가 스페인어로 말을 하면, 그 말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우르르 웃고, 콜롬이 그 말을 영어로 바꿔 말하면, 내가 뒤늦게 우르르 웃는 식이었다. 내 웃음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는 데는 어떤 통역의 과정도 필요하지 않았다.[14]

이 장면에서 보여 주는 소통의 아름다움은 언어가 추상성을 넘어 정동으로 운동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많은 해외여행서사 속에는 인물들의 소

14) 윤고은, 「콜럼버스의 뼈」, 『도시와 나』, 바람, 2013, 175면.

통 속에 발화되는 언어들의 차이를 암시하곤 한다. 이 차이는 그 자체로 여행의 상황을 언어적 층위에서 상상하게 하는 측면도 있지만, 발화의 방식이 상대의 입장에 맞춰져 있다는 독특성을 표현하기도 한다.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중에 우리는 상대와의 다양한 차이를 잊고는 하지만, 발화의 과정은 모두 통역의 과정일지도 모른다. 서로의 언어에 서툴수록 우리는 다른 많은 지표들, 상대의 다양한 감정과 반응에 집중하여 알 수 없는 수많은 차이들을 배려하며 '가장 공통의 어떤 것'을 상상하는 공감의 능력을 발휘한다. 그리고 마침내 이루어지는 소통은 그것은 양자 모두의 능동적 정념이 빛나는 순간일 것이다. 언어의 오해를 넘어 소통을 경험하[15]는 이 과정은 불안이나 부여된 상실감을 치유하며 지구적 세계와 그 안의 게토를 자유롭게 넘어서는 무기가 될 것이다.

4. 맺음말

마크 피셔는 그의 저서 『자본주의의 리얼리즘』의 첫 장을 '자본주의의 종말보다 세계의 종말을 상상하는 것이 더 쉽다.'는 프레드릭 제임스와 슬라보예 지젝의 구절로 시작한다. 이 지구적 시스템의 밖은 더 이상 없다고 한다. 이 매끈하고 견고한 시스템은 외부 뿐 아니라 틈조차 없을 것만 같다. 우리 삶의 창조적 자양과 도구로 쓰이고도 있는 각종 소통과 디

15) "말잡기는 또한 둘째 의미에성 번역을 의미한다 항상 다수의 말을 하는 주체성들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 살아있는 방식의 말잡기는 이질적인 목소리들과 '이질언어적'공동체들에 힘을 주어야 한다. 이 목소리들과 공동체들은 각자 마치 외국어로 말하는듯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번역하고 소통할 수 있다. 이는 자멘호프보다는 조마이의 세계이다. … 여기서 필요한 번역 과정-이는 언어적인 동시에 문화적 · 사회적 · 정치적이다-은 특이성들을 공통적인 것 안에 위치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일종의 공통화(commoning)이다. 그런데 앞에서 되풀이해서 말했듯이,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공통적인 것은 "동일한 것"이 아니며 획일성을 함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은 그 반대다!" 안토니오 네그리, 어쌤불리, 143면 (출판물이 아닌 세미나 용 번역본임)

지털 기기들은 시간과 공간을 압축하며 모든 틈을 매우는 착취의 도구로도 강력하게 힘을 발휘한다. 인류는 외부적 억압과 그 불안을 자신의 내부로, 혹은 인간의 고귀한 고독으로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도망치고 벽을 쌓는 것으로 해소하기도 한다. 그래서 인류는 '고독을 잃어버리'고, '쓰레기를 만들어'가며 지구라는 '국경시장'을 자신을 소진할 때까지 헤매기도 한다. 하지만 소설은, 소설 속 인물들은 탈주를 꿈꾸지 않을 수 없다.

여행은 이 외부 없는 세계를 확인하는 실질적이고도 함축적인 방법이다. 물론 소설 속 인물들의 여행은 뚜렷한 목표 없이 시작된다. 「춤추는 방」의 인물은 소설을 쓰기 위해서 라고는 하지만, 사실 별다른 목적 없이 러시아에 도착한다. 「뼈」의 '나'는 확신이란 없는 정보를 들고, 심지어 비슷한 시기에 전혀 다른 반대되는 정보를 얻었음에도 실낱같은 희망 같은 것을 붙잡고 스페인으로 떠나왔다. 「무종」의 인물은 특정한 목적지 없이 셋방을 떠돌 듯 도시에서 도시로 옮겨 다닌다. 유학이라는 가장 확실한 목표를 가진 듯한 「마른 꽃」의 인물 역시 그저 자신의 조건에 쫓기듯 그저 방황할 뿐이다. 「국경시장」의 인물들 역시 절망의 흐름에 자신을 얹어 지구를 떠돌고 있었고, 더 이상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지 못한다. 이들은 모두 목적지에 대한 정보도 목적지에 대한 욕망도 분명하지 않은 채로 지구를 떠돌다 방이나 길이라 불리는 미로 안에 갇혀 버리고 만다. 이 목표가 막연한 떠돎은 그 자체로 외부 없는 세계에 갇힌 사정을 대변한다. 그리고 그들이 시도한 1차적 탈주로서의 여행이 도달한 곳인 방과 미로는 더 거대한 가옥으로서의 지구를 함축한다 할 것이다.

하지만 거기 어디쯤에서 이들은 방이나 길이라 불리는 미로로부터 나설 문을 찾고 있다. 떠났지만 다시 갇힌 존재로, 그러나 정착할 수 없는 존재로 구성되는 주체는 나름의 방법으로 다시 한 번 탈주를 준비한다. 일부는 잃어버린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구성하기 위해 입사의 의식을 완주하여 불안을 넘어서고 기억을 통해 고유성을 획득하고자 한다. 또한

이웃을 향한 애도와 배려를 잊지 않음으로써 갇힘 벽에 문을 내거나, 성실하게 이동을 지속하는 신체의 물리적 경험을 지속하며 비효율적이고 서툴지만 끈덕진 '통역', 곧 소통을 위한 인내와 배려를 지속하기도 한다. 다른 한편 소유의 불안정성을 적극적 무소유로 항유하는 유목의 삶의 방식을 지속하기도 한다.

현재 우리가 놓여 있는 곳은 마치 '국경의 밤'과 같다. 명확한 선은 없는듯하면서도 더 많은 혐오와 재난으로 무수한 선을 그어놓은 이 세상은 거대한 감옥이다. 소설 속 인물들은 열림 공간 속의 벽과 선에 대한 인식을 통과하여 월경의 상상력으로 나아간다. 아마도 소설은 끊임없는 이 상상력의 역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김성중, 「국경시장」, 『국경시장』, 문학동네, 2015, 7-36면.

배수아, 「무종」, 『올빼미의 없음』, 창작과 비평, 2010, 155-188면.

윤고은, 「콜럼버스의 뼈」, 『알로하』, 창작과 비평, 2014, 259-287면.

이장욱, 「이반 멘슈로프의 춤추는 방」, 『기린이 아닌 모든 것』, 문학과지성사, 2015, 257-286면.

해이수, 「마른 꽃을 불에 던져 주었다」, 『젤리피쉬』, 자음과모음, 2009, 265-320면.

2. 논저

권명아, 『무한히 정치적인 외로움』, 갈무리, 2012.

닝왕, 이진형 외 역, 『관광과 근대성』, 일신사, 2004.

마크 피셔, 박진철 옮김, 『자본주의 리얼리즘』, 리시올, 2018.

이미림, 『우리시대의 여행소설』, 태학사, 2006.

정현목, 『마르크 오제, 비장소』, 커뮤니케이션북스, 2016.

지그문트 바우만 지음, 김동택 옮김, 『지구화, 야누스의 두 얼굴』, 한길사, 2003.

지그문트 바우만 지음, 한상석 옮김, 『모두스 비벤디 : 유동하는 세계의 지옥과 유토피아』, 후마니타스, 2010.

안남연, 「현대 소설에 나타난 다문화 현상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40집, 2013, 153-185면.

우미영, 「연표·지도 밖의 유랑자와 비장소의 시학」, 『한국언어문화』49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12, 33-60면.

이미림, 「유동하는 시대의 여행과 이주 양상」, 『한어문교육』, 제32집,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2015 643-670면.

_____, 「1990년대 여행소설의 탈근대적 사유와 타자성」, 『세계한국어문학』, 학회, 2008, 199-224면.

_____, 「해이수 소설의 여행·디아스포라·다문화의식」, 『국어국문학』155, 국어국문학회, 2010, 329-355면.

_____, 「유동하는 시대의 이방인들, 이주자와 여행자」, 『한국문학논총』65집, 2013, 643-670면.

임정연, 「지도 바깥의 여행, 유동하는 장소성」, 『국어국문학』184, 국어국문학회, 2016,

217-239면.
_____, 「1990년대 여행서사의 문화지형과 젠더 감수성」, 『국제어문』제71집, 국제어문학회, 2016, 163-186면.
조명기, 「국제여행소설에 나타난 국외 도시 장소 정체성의 상상 방식」, 『한국언어문학』98호, 한국언어문화학회, 2016, 225-253면.

<Abstract>

Travel narrative of the world without outside
—Oppression and Escape in the 2000 International Travel Narrative

Kim, Se-jung

This paper analyzes the fluid modernity in the overseas travel narrative in the 2000s as a sign of weakening of the leading border and strengthening of the inner border, and examines the literary imagination of the breakout / menstruation corresponding to it.

Recognized as a distinguishing feature of overseas travel narratives in the 2000s is their non-placement and anonymity, and the structure of the travel narrative. Unlike traditional travel narratives, which consist of a circular structure of origin return, which is usually a settlement-leave-mounted (snacks-travel-snacks) plot of travelers, the structure of travel narratives in the 2000s is omitted.

It is the modern syndrome that flows that can be read through these characteristics, and the fact that this modern constitutes the subject as being without the place of inner home. On the one hand, these traits reveal the weakening of leading borders and the strengthening of intrinsic boundaries, which are combined with the spatial aspects of slum or ghetto and the psychological aspects of aversion and fear. Travelers leave but enter the wall again, unfolding in the form of a room and a path. In this they enter themselves thoroughly, but it is no different from the experience of a fluid and compact globalized world. It is common to these narratives to escape outward, but eventually realize that they are trapped

in a stronger, larger gap.

The subject, who is departed but trapped again, but cannot settle down, prepares to escape again in his own way. Some want to acquire a unique position by completing the consciousness of entry to reconstruct their lost identity. Others continue the physical experience of the body, which continues to move in good faith, and continue to be inefficient and clumsy but persistent “interpreters,” patience and consideration for communication. It also continues the nomadic way of life, which enjoys the instability of ownership with no active ownership.

The place where we are now is like 'border night'. There is no clear line, but the world, which has drawn a myriad of lines with more hate and disaster, is an open cell. In any case, the perception of the walls and lines leads to the imagination of Crossing the border. The novel cannot be free from the power of this endless imagination.

Key words: Travel Narrative, Liquidity, 2000s, Diasporam, Kim Seongjoong, Bae Suah, Yun Koeun, Lee Jang-wook, Hae Yisoo

투 고 일 : 2019년 10월 31일 심 사 일 : 2019년 11월 18일–12월 6일
게재확정일 : 2019년 12월 11일 수정마감일 : 2019년 12월 26일